

우크라이나 필하모닉 내일 저녁 해남 공연

“우크라이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이 28일 저녁 7시 30분 해남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의 본고장 유럽, 그들이 전하는 춤추는 클래식’이란 주제로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인형’ 중 발레 모음곡을 비롯해 영화음악, 민요, 가요 등 다양한 레파토리를 선보인다.

1932년 창단한 ‘우크라이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고전에서 현대음악까지 유려한 선율과 다이내믹한 리듬, 정교한 곡 해석으로 세계적인 축제에 초청받고 있다.

동유럽에서 실력과 지휘자로 인정받고 있는 강민석(49)씨가 이번 음악회의 지휘봉을 잡는다.

강씨는 지난 2001년 1월 루마니아 시비우 필하모닉에 초대돼 유럽무대에 데뷔했고, 2002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루마니아 국영 라디오 방송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생중계로 지휘해 호평을 받았다.

뛰어난 음악성과 지도력으로 세계적인 유수의 오케스트라로부터 각광을 받으며, 한국적 정서의 프로그래밍으로 유럽에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지휘자로 주목받고 있다.

해남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멀게만 느껴졌던 정통 클래식을 곡 해석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형석기자 dia@

‘10년후 잘사는 무안’ 리모델링

郡 ‘비전 2020 장기발전 계획’ 착수보고회 남악읍 승격·농어촌 개발 등 추진전략 마련

무안군이 10년을 내다보는 지역발전 밀그림을 그린다.

무안군은 지난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철주 무안군수와 군의원, 지역대표를 비롯한 농·수·축산, 문화관광, 기업체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총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2020 무안군 장기발전 계획’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군 장기발전계획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오는 2022년도를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무안군과 인근 시·군 지역

을 포함한 농·어촌개발, 문화관광, 복지, 경관 등 부문별·단계별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보고회에서 군은 남악읍 승격과 한·미 FTA 등 국내외 정세에 맞춰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능동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제시를 통해 ‘전남 신행정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해 서남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장기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해 보다 구체화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오는 하반기 주민공청회를 거쳐 연말 새롭게 출범하는 국정정책에 부합하는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철주 군수는 “현재 군의 실정은 무안 기업도시, 남악 신도시, 무안국제공항 등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미진하게 추진되면서 어느 때보다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쟁력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들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군민과 군의회, 각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8만 군민 모두가 잘살고 지속가능한 군으로 리모델링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흑산도서 국내 최대 ‘섬향나무’ 군락지 확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신안군 흑산도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섬향나무’ 자생 군락이 발견됐다. <사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와 합동조사에서 1ha규모의 ‘섬향나무’ 군락지를 확인했다.

섬향나무들은 길이 200~250m, 너비 40~50m 규모로 섬 해안가를 따라 군락을 이루고 있다.

주변 식생조사 결과 ‘열주괴불주머니’, ‘갯까치수염’ 등의 초본류와 ‘돌가시나무’ 등의 관목층과 함께 생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향나무’는 측백나무과의 상록 침엽관목으로 해안지대에서 옆으로 뻗으며 자라고, 가지는 위를 향한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분류등급은 식물의 분포를 한반도 전체로 볼 때 얼마나 좁은 범위에 분포하는지를 기준으로 I~V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다. 숫자가 클수록 희귀한 식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섬향나무’는 V등급으로 생태적 환경 등의 이유로 고립 혹은 불연속적으로 분포하는 분류군에 해당하는 수종이다.

박용규 서부사무소장은 “흑산도 등 일부 섬지역에만 자생하고 있는 ‘섬향나무’의 희귀성을 고려해 자생 군락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는 물론 향후 지속적인 순찰단속을 통해 자연훼손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무안군 ‘핸드볼 일번지’로

초·중·고 대회 잇따라 개최...우수선수 발굴

무안군이 ‘핸드볼 일번지’로 거듭나고 있다.

무안 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석원)은 최근 초당대 금문체육관과 무안고 체육관, 목포대 체육관에서 ‘제3회 무안군 초등학교 핸드볼 꿈나무 선발대회’와 ‘2012 학교스포츠클럽 주말리그 핸드볼 대회’를 2012 교육장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핸드볼·농구)를 개최했다.

핸드볼 대회는 초등 남자 9개팀과

초등 여자 6개팀 등 남·여 초등학교 15개팀이 참가해 남자 초등부 우승은 무안초등학교, 여자 초등부 우승은 삼향초등학교가 각각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박소영(삼향초 6학년)·장한비(무안초 6학년)학생이 최우수 선수를 수상했다.

학교스포츠클럽 주말리그 농구 대회에서는 무안 북중학교가 중등부 우승을, 무안 현경고등학교가 고등부 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농협·삼성 서울병원 완도서 의료 봉사

농협 중앙회와 삼성 서울병원은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도서지역의 농업인 의료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최근 이틀간 완도군 노화중학교 강당에서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진료에는 삼성 서울병원 최고의 의료진 100여명이 참여해 내과·정형외과·가정의학과 등 과목을 진료했으며, 복부 초음파·심전도·X-ray·혈액 및 소변검사 등이 이뤄졌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은 진료 외에도 고령농에 대한 장수사진 촬영과 다문화가정 가족사진 촬영 등을 병행해 지역민들로 부터 호응을 얻었다.

농협은 앞으로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유수의 병원과 함께 의료서비스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기동기자 song@

전 북

군산 쌀 서울 학교급식 확대 총력

3년간 1262t 공급...급식위원 초청행사 지속

군산시가 서울시 학교급식 시장확대에 발 벗고 나섰다.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 쌀은 지난 2010년 38개 학교·198t(4억 7500만원), 2011년 109개 학교·497t(12억원), 2012년 145개 학교·567t(15억5600만 원) 등 3년간 총 1262t(32억3100만원)이 수도권 학교에 공급됐다.

관악구에 공급한 물량은 ▲2010년 7개 학교·35톤(8600만원) ▲2011년 10개 학교·57t(1억3600만원) ▲2012년 14개 학교·72t(1억9400만원) 등 3년간 총 164t(4억1600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공급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기 위해 농수산물유통과 직원들로 출장 홍보반을 편성해 서울시 전체구청·교육청·학교 등을 방문, 홍보용

쌀을 증정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25일에는 친환경쌀 생산농협인 동군산농협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관악구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영양사, 구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위원 45명을 초청해 친환경쌀 재배현장 및 농업 도정공장 견학 등 농촌 현장체험을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 금천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 5회 정도 학교급식위원 초청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시 친환경 쌀 학교급식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 되므로 초청행사를 확대 실시하고, 지속적인 출장홍보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부안 축산농가 종사자 방역 의무교육

농협, 연말까지 순회 실시

축산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가축질병과 방역 등 의무교육이 하반기에 실시된다.

26일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 2월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개정·공포에 따라 축산관련 종사자와 축산시설·농장을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는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내년 2월 23일부터는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축 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 가축 거래상인, 신규 축산시설 출입차량 종사자 등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교육운영 기관으로 지정된 농협 전북지역본부가 8월 23일부터 연말까지 총 15회에 걸쳐 순회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축산업 종사자 교육관리 홈페이지(www.farmedu.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부안군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의무교육이 처음 실시됨에 따라 축산관계 종사자들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주-완주 통합市 밀그림 그린다

‘희망제작소’ 연구 용역 착수...발전 전략 마련 반대 주민에 세금부담 대책 등 비전제시 기대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전주-완주 통합시(市) 비전 연구용역’을 맡은 희망제작소는 26일 도청에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희망제작소 측은 “주민의 우려 사항과 이에 따른 해소책, 전주-완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비전 등을 연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희망제작소는 이번 용역에서 도·농 복합형 도시계획을 비롯해 ▲읍·

면 특화 발전 ▲농축산업 육성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강화 ▲신성장산업 육성 ▲교통체계 등 다양한 발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지역 소외, 혐오시설 배치, 세금 부담 등 완주 군민이 우려하는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검토키로 했다.

또 통합시(市) 출범에 대비해 행정조직과 정원, 공공시설물 관리, 재정설계, 법률제정 등에 대한 검토도 이

뤄진다.

이들 지역 주민의 절반 이상은 최근 지방행정 체계개편 추진위원회의 여론조사에서 통합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주-완주를 시·군 통합 최종 대상으로 확정했다.

앞서 4월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는 전주-완주 통합 추진에 전격 합의하고 이달 중순 상생발전사업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가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에게 비전을 제시, 통합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앵글극 ‘춘향제례’...춘향제 사진촬영대회 금상

남원시가 최근 주최한 ‘제26회 춘향제 사진촬영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박성배(서울시) 씨의 ‘춘향제례’. 시는 7월중 남원시청과 남원역에서 입선작품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남원시 제공>

단 신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 29일 개장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이 29일 개장해 8월 15일까지 48일간 운영된다.

군산시는 29일 오전 11시 선유도 해수욕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가운데 개장식 행사를 갖는다. 이날 개장식에서는 손님맞이 친절 결의대회와 물가안정 협약



체결 및 환경정화 캠페인 등이 함께 열릴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시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김제시는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2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펴냈다.

이번 발간된 보고서에는 ▲수돗물의 생산 및 공급과정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 수질기준 ▲안전한 수돗물 음용을 위한 주민 협조사항 ▲수돗

물 주요 용어 정의 등 수돗물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시는 지난해 관내 50개소에 대한 일반세균 검사 등을 포함해 57개 항목 수질검사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정읍시 하계 아르바이트 학생 100명 모집

정읍시는 대학생들의 여름방학을 앞두고 7월 4일까지 2012년 하계 아르바이트 학생(100명)을 모집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특별모집하며, 일반모집은 특별모집 후 미충원 인원에 대해 후순위로 선발한다. 시는 7월 9일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10일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르바이트에 선발된 학생은 7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 5일, 1일 7시간 정읍시의 주요사업장에서 현장근무를 하고 1일 3만4000원의 급여를 받는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부안군 보건소 보육시설 ‘수족구병’ 주의보

부안군 보건소는 “최근 전국적으로 ‘수족구병’(手足口病)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여름철 개인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수족구병’은 여름철에서 가을

철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대부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들에게 감염도가 높다. 부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외출 전·후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하는 등 철저한 건강관리를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